



2012 **1** 마산고등학교 제21회 동창회

통권 제325호

발행:이종섭 / 총무 :구해룡 016-9567-6797

편집:제갈선광 010-5146-4925 / mail : wing44@paran.com

■■■  
퇴임사

백의  
중군 하겠습니 다 ] 이종섭



가 , ? 1  
21 ,  
가 가 .  
가 , 50  
가 , 가  
가 .  
1  
21 .  
가 가  
\* .

**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2011년 12월

수입			지출		
적요	금액	비고	적요	금액	비고
회비	950,000	김태욱 신대순 오차근 이영부 각15만원	회보	210,000	인쇄(봉투포함)
		이무일 전기용 각10만원	월례회	78,210	발송
		이성환 재갈선광 황한균 각5만원	경조	780,000	불로식당
			기타	100,000	김기정 혼가
협찬	100,000	송인창 상가	관리비	30,000	송년현수막2개
현물협찬		총동창회 양주2병	정수기	110,200	동창회사무실
		권국주 달력 100부	유선비	19,900	
모금함	135,600	동창회사무실	수당	5,500	총무
송년회	바다여행	이중섭회장 20만원	회비삭제 중복기록	300,000	오차근 최광수 각15만원 2011년도결산서참조
		박소웅 10만원			
		황한균 5만원 그외 1만원			
수입계	1,185,600		지출계	1,783,810	
전기이월	1,278,089		차기이월	679,879	
합계	2,463,689		합계	2,463,689	



**恭賀新年**

(送舊知時泰)  
(迎新覺歲興)

가

壬辰元旦  
南淵 李晃久

졸업50주년 참가비 다음구좌로 접수합니다.

금액 18만원

계좌번호 : 김용인(우리은행) 1002-844-779524



歲暮가 찾아온다 싶더니 어느새 冬至다. 크리스마스  
를 알리는 형형색색의 트리가 밤거리를 수놓고  
깊은 불황 속에서도 구세군 종소리는 맑게 퍼진다. 하루하  
루가 연기처럼 흩어지더니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아쉬

움과 허전함은 그리움으로 변해 사람들은 저무는 한해의 끝자락에서 소  
중한 친구들을 떠올리며 연하엽서를 보내고 정성 깃든 선물을 준비한다.

그리스마스와 연말 세모가 다가오는 이맘때 송년의 밤을 겸한 모임은 짐짓  
좋은 선물 이상의 추억과 낭만을 느낄 수 있고 환희와 희열은 우리들의 이  
상향이다.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 사자성어는 『掩耳盜鐘』 녀자가 굶직  
하게 박힌 글자 그 뜻을 새겨보면 ‘내 귀만 막으면 아무도 훔치는 종이  
울리는 소릴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주관적 판단이고 나야 못 들지  
만 딴 사람은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객관적 판단이다. 양면성 기초논  
리가 담겨있다고 한다. ‘귀를 가리고 종을 훔친다’ 는 뜻인데도 말이다.

내년 1월, 첫 월례회는 설연휴가 지난 1월25일(수), 중성동 곱들위 생삼  
겹살(옛 둥근달)에서 정기총회를 겸해 갖기로 하였다. 이날이 지나면 졸  
업50주년행사도 겨우 두 달이 채 안 된다. 신입 회장단과 추진위원께서  
열성적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勿失好機! 좋은 기  
회를 놓치지 않도록 소외된 동창들에게 다 같이 동참하도록 격려하고 독  
려하자.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어도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참석자  
김영태, 김경중, 이지혜, 김과, 석영, 임태경, 유현, 양경, 김석우, 오현, 장광, 최구, 김오, 장정, 최구, 해룡, 차정, 구경, 근치, 수룡, 정안, 정현, 김기, 소용, 안환, 김기, 반이, 정이, 태영, 대의, 건상, 김태, 환우, 건우, 김배, 이우, 건우, 방보, 무정, 태기, 일우, 정우, 김배, 이우, 건우, 김성, 재성, 창성, 김변, 이창, 김성, 재성, 창성, 김순, 재아, 인제, 김태, 영인, 신광, 김용, 기영, 부조, 인홍, 부남, 김소, 인이, 규조, 정동, 중규, 정수, 개성, 정웅



오스타파라곤아파트 307동 1001호  
031-982-3254 016-751-7149

- ♣ 김지남 동문  
동문의 새주소입니다.  
부산, 동구 수정5동 546-5번지(5/3)
- ♣ 김태조 동문  
동문의 새주소입니다.  
김포시 걸포동 1555번지

- ♣ 휴대폰 변경  
김용인 010-6505-3704  
송일성 010-5321-1511  
이영부 010-2517-2807  
이대우 010-9397-3251

원고접수 E-mail : wing44@paran.com

졸업50주년행사  
추진현황 ] 배종길

1.

- 마산, 부산과 기타지역 동문들을 위한 김해-제주 간 비행기 좌석 118석 확보.
- 참가비 납부를 당부하니 지난 9월 참여의사를 밝혔던 동문 중에 행사날짜 변경 등의 사유로 참가를 유보하는 동문들이 있어 당초 계획 인원내 비상이 걸렸음.
- 정히 바쁘신 동문은 이번 행사의 핵심인 일요일 저녁 만찬에만 참석하시고, 다음날 이른 비행기 편으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김정수, 대전의 박장규 동문이 그렇게 하기로 했음.
- 광진스님(이복렬)의 도반으로 서귀포시에 계시는 주지스님께서 아침공양으로 제주산 전복죽을 대접하겠다는 기대하시기 바람

2.

(주) 안세의 안병근 동문이 기념품 마련에 오백만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또 서울동문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지원금 오백만원을 기탁함으로써 예약한 비행기 좌석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됨.

3.

지난달 송년모임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참석인원이 저조하여 회장, 총무께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참여를 권유하느라 분주함.

4.

- 기념품으로 선택된 물품을 추천하신 동문에게는 현상금 십만 원 지급.
- 개당 35천원 내외의 물품 160개 구매계획
- 남자용 지갑, 벨트, 시계, 가죽장갑, 보온밥(죽)/물통세트, 주방용소모품세트 등이 거론되고 있음.
- 위 물품 외에 적당한 기념품을 추천 바라며, 특히 사모님 전용품 환영함.
- 참고로 소비자 가격 십만 원 정도의 물건도 대량 직거래할 경우 3분의 1 가격으로 구매가능.

**졸업** 50주년을 맞이한 기념행사의 사전작업의 일부인 미리 만나보는 그때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A반부터 F반까지 다 끝났지만 마지막 G반인 말반이 끝마무리를 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추진위원장인 배종길 친구로부터 본인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하기에 본인은 학교 다닐 때 키도 쪼그만 했고 공부도 잘 못해서 친구들이 알아보지 못하므로 글을 쓸 수 없다고 극구 사양하였더니 그래도 몇 자 적어보라고 하기에 50년 전 기억을 더듬어 몇 자 적어본다.

**졸업50주년을 앞두고  
미리 만나보는  
그때 그 친구들** } 3 G

황한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우리 G반 담임선생님인 생물을 가르치신 박상영 선생님이 생각한다. 아메바를 설명하시고 HP(휴대폰 발음과 유사함)에 대해서 제스처를 써가면서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던 선생님의 얼굴이 떠오른다. 지금은 스마트폰까지 나온 세상이라 선생님께서는 50년 전부터 先見之明이 계셨다고나 할까……. 아무튼 그러한 선생

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우리 G반 친구들은 특출하게 뛰어난 인물은 없지만 그런대로 사회각층에서 골고루 맡은바 열심히 일하여 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 중에서도 후세교육을 위해 청춘을 불살랐던 박진형(동웅), 조영민 친구들과 개인 사업가로서 경제활동에 열성을 올렸던 우리 반 중에 키가 제일 큰 조규식과 지금은 사물놀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조재호 친구, 김창환 친구는 모든 것을 접고 양평에서 전원생활을 하며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고, 날쌔돌이처럼 몸이 빨라 야구선수로 날렸던 이창희 친구는 지금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대학교수였던 최대석, 기계체조의 달인 송종선 친구는 벌써 우리들과 헤어졌고, 그 외 예능방면에도 한때 모 가수와 스캔들이 있었던 조규철! 이는 방송국 PD로 활약했고, 고서화 및 골동품을 수집하여 그에 대한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정정용 친구들, 법조계로서는 검찰청 사무국장을 역임한 안병상 친구는 본인과 더불어 서민들의 법률길잡이를 하고 있는 법무사로서 맡은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반에는 쌍둥이 친구들이 있었는데, 박상흠(쌍둥이 박구흠), 김방소(쌍둥이 김방태) 친구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그 외에도 여러 친구들도 각자 사회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기억이 아롱아롱하여 일일이 다 소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자료를 넘겨받아보니 강호일, 김재석, 김주 명광주 송종선 옥태종 임숙환 장덕린 최대석 등 9명의 친구들은 처음에 이곳으로 왔던 곳인 지수화풍(4대)으로 돌아가고 없네요. 부디 그곳에서 동창끼리 모여 졸업50주년 기념행사 치루도록하시고 우리들은 아예 갈 수 없는 곳이니 절대로 초청장을 보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 전체 58명 중 위 9명을 제외한 친구들 중 권영재 김광웅 김병수 김정평 박무남 박상태 박상흠 변재기 윤시웅 이경우 이말수 이명 이영재 이영택 이영환 이종인 이창희 임기섭 임무일 전영간 조근영 조영래 조용제 최영환 최재호 하무정 황기홍 등 27명은 주소도 모르고 어느 하늘아래 있는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김건일 김길웅 김방소 김방안 김종숙 김종호 김창환 김청조 박진형 박형식 안병상 정정용 제정택 조규식 조규철 조영민 조재호 최윤도 최종정 하무정 황선건 황한균 등 22명은 동문수첩에 등재되어 있지만 일부 친구들은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청운의 뜻을 품고, 한 교실에서 수학을 한 지가 벌써 반백년이 흘러갑니다. 명단을 보니 이름이 알 듯 모를 듯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친구들이 많지만 이 기회에 ▶



○ 구랍 14일 오후 6시 강남 역삼동에 있는 '돈존'에서 송년의 밤을 가졌다.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박중 회장의 인사에 이어 서증성 총무가 졸업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변경 내용을 설명한 후 화기애애한 속에서 술잔을 기우리며 송구영신의 정담을 나눴다. 이날 권국주 동문이 멋진 새해 달력을 연말선물로 보내왔고 안병근 동문이 식사비를 부담했다.

참석자

김덕조 김복남 김영웅 김종화 김태조 김창환 김학영 문동영 박광지 박금준 박박중 박용시 박일곤 방학기 서증성 성재삼 송일성 안병근 유찬종 이고명 이석우 이실 이영우 임흥무 전승치 제정택 조용석 조재호 주영국 최윤도 하무정 허양도 허호 홍창우 황일웅

○ 구랍 28일까지 박박중 회장을 비롯한 11명이 졸업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찬조금을 재경동창회에 회사했다.

김종화(30만원) 김태조(50만원) 김학영(20만원) 박박중(50만원) 이석우(50만원) 조재호(50만원) 안병근(500만원) 이흥규(50만원) 주영국(30만원) 허호(100만원) 황일웅(50만원)

謹賀新年  
壬辰年 가



◁ 모두 만나 옛날을 되새겨보는 것도 우리들에게 남은 인생에 얼마나 보람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회장단에 전화 연락이라도 한번 해주구요.

끝으로 50주년 기념행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본부회장단 및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님들께 격려와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

**'김용실·김성준연사 추모의 밤'**  
기금마련을 위한 **경남여성회기 3인 그룹진**

장소: 창원상공회의소 갤러리  
일시: 2012년 2월 15~29일  
후원: 상공회의소

**경남대학교 초청 워크숍**  
**플리멩코외 실풀이춤의 예술성 비교(예정)**

초청강사: Juana Larreta(스페인 그라나다 무용수)  
장소: 경남대학교 예술관 강당  
일시: 2012년 3월 9일 오전 11시~12시  
※문의: 016-805-0320 김준형 동문에게



## 남의 작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변판석 / 안산세무사회 회장



사람의 귀는 두 개인데 입이 하나인 것은 남의 말은 두 마디 듣고 나는 한마디만 하라는, 즉 남의 이야기는 많이 듣고 나는 말을 적게 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를 대할 때 목소리를 높이고, 화난표정으로,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 말만하는 광경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생김새가 다르듯 그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나와 의견이 다르면 당신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적대시하고 편 가르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서로의 도움과 보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남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도 내가 모르는 진리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은 바로 상대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감히 상대를 무시하고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권한을 가졌겠습니까?

새해에는 다시 한 번 다짐해 보고자 합니다. 남의 작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로 발전하도록 노력해 보자고. 사람의 귀가 두 개인 것을 되뇌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8쪽에서(적화통일 이어짐 -

16. 시체는100% 화장해버린다.(송두율은 김정일의 지시로 1978년에 독일 베르린대학교에서 1941-43년간 유대인 강제소각장 운영과 전후처리결과에 대한 논문으로 대략학살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이북에 제출했다.
17. 남한출신들은 100년간 통일 조국에서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금지된다.
18. 어선으로 탈출하려는 보트피플이 일본과 대만근해에서 집단적으로 나타나며 해상에서 탈출하다가 폭풍과 사고로 죽는 자가 100만이 넘는다.
19. 간헐적으로 도심에서 무장폭동이 일어나나 즉시 무참히 진압된다.
20. 외국과의 모든 교신과 거래는 금지되며 인민위에서 인정하는 것만 승인된다.
21. 뉴스는 정해진 시간외에는 일체 들을 수 없다.
22. 자살이 너무 많아서 기관에서 자살방지를 위한 상호감시체제가 극에 달한다.  
(본내용은 1975년 4월 월남 패망 후 월맹정권이 10년간 자행한 것을 모델로 삼았고 탈북자들이 밝힌 북괴 대남 접수 시 행동요령을 발췌했음)  
※ 북한은 월맹에게 대량학살 방법을 전수한 유일한 단체입니다. \*



# 지하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은 김정일과  
그 후계만이  
알므로 장담을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1975년  
4월30일의  
월남 패망  
직후의 상황을  
탈북자들의  
진술과  
조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구조사와 주택조사와 재산조사를 일거에 해버린다. 모든 재산은 매매를 동결시킨다. 팔면 처형된다.
2. 거주지간의 이동을 금지하며 허가받은 자만이 이동 할 수 있다.
3. 5호담당제(월남패망직후실시)가 아닌 3호담당제를 실시한다.
4.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3호 담당자 책임자에게 보고해야한다.
5. 불평불만한자, 허가와 사전승인을 무시하는 자를 공개처형하며 공개처형장은 인근학교 운동장에서 한다.
6.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을 분리시킨다며 대대적인 거주지 이동을 명한다.(부산에서 강원도로 광주에서 함경도로)
7. 유산계급자(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재산1억 이상 소유자, 놀고 먹는 자 등등) 들을 사회범죄자(술주정뱅이, 강도강간자, 소문이 안 좋은 자 등등)와같이 집단 처형해버린다.
8. 모든 물건은 배급제로 한다.(식량, 물까지)
9. 전직공무원, 군인(하사관이상) 경찰, 들은 재 교육장으로 끌고 가서 강제노동으로 살게 한다.(대부분 5년 이내 사망함-월남)
10. 말 함부로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데려가서 처형한다.
11. 모든 공개처형은 재판 없이 즉결심판으로 실시한다.
12. 남한의 아파트와 집들은 전부 북한 노동자들이 차지한다.
13. 살아남은 대부분의 남한사람들은 북한 땅으로 강제 이주되어 재건작업에 투입된다.(3년 내 50%이상 사망확실)
14. 기술자들은 북한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기술을 인수인계 후에 이주시킨다.
15. 전체적으로 남한인구가 3천만으로 줄때까지 처형과 강제노동이 지속되다.

7쪽에 이어짐 -

## 2012년 1월 월례회 안내

주요의	월례회	jan 25	-부인회-	주요의
	일시 : 25일(수) 오후 6시 장소 : 곰돌위생삼겹살 223-9969(삼성생명 앞) (옛 동근달석쇠불고기)	jan 30		